

호남대 펜싱 전국 호령...사브르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

남자부, 동의대 45-41 꺾고 우승
여자부는 지난해 이어 대회 2연패

호남대학교 펜싱 선수들이 제60회 전국남녀 중별펜싱선수권 대회 남녀 단체전을 석권했다.

호남대 남자펜싱부는 지난 8일 열린 이 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 동의대를 45-41로 꺾고 우승했다. 박정호·유수근(이상 2년)·주진현(1년), 윤성현(4년) 등이 우승주역이다.

여자펜싱부는 같은 날 열린 사브르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45-40으로 제압, 1위에 올랐다. 이승주·최민지(이상 3년)·이승주(4년)·김유민(2년)이 고른 기량으로 우승을 견인했다.

여자 펜싱부는 지난해 같은 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라 2년 연속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김유민은 개인전 준결승에서 15-4로 임혜림(동의대) 무릎을 꿇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남녀 중별펜싱선수권 대회 남녀 단체전을 석권한 호남대 펜싱선수단. <광주시체육회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올 시즌 단체전 '2관왕'

평창평화장사대회 결승서
울주군청 4-2로 꺾고 우승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올시즌 단체전 2관왕을 차지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 제약 2022 민속씨름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장영진·최영원·곽수훈·장성우·허성행·최정만·차민수로 구성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단체전 결승(팀 간 7전 4승제·개인 간 3전 2승제)에서 울주군청을 4-2로 꺾고 정상에서 포효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3월 장종대회에 이어 올해 단체전 2관왕을 기록했다.

한편, 정상조(30·수원특례시청)는 같은 날 백두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백원종(24·울주군청)을 3-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2015년 11월 천하장사 대회에서 생애 처음 천하장사에 올랐던 정상조는 이로써 약 7년 만에 두 번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백두장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강에서 박찬주(태안군청)를 2-0으로 제압한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영암군민속씨름단 제공>

그는 8강에서 9차레나 장사를 지낸 김진(증평군청)을 2-1로 꺾었고, 4강에서는 같은 팀 동료인 서남근(수원특례시청)까지 잡쳐와 몇걸이로 쓰러뜨렸다.

결승 첫판에서는 백원종에게 들배지기로 먼저

점수를 내줬지만, 두 번째 판 밀어치기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경기에선 백원종이 2-1로 다시 앞섰으나, 정상조는 네 번째 판과 다섯 번째 판에서 연달아 잡쳐기를 성공시켜 역전승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연합뉴스



불의 주인은?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남아공과 웨일스의 럭비 챔피언십 테스트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라인아웃인 불을 차지하기 점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차 징크스' 시원하게 날렸네

KLPGA 지난해 신인왕 송가은 '와이어 투 와이어'로 시즌 첫 우승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우승한 송가은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송가은(22)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시즌 마수걸이 우승으로 '2년차 징크스'를 시원하게 털어냈다.

송가은은 10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8언더파 198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10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당시 세계랭킹 7위 이민지(호주)를 연장에서 꺾고 생애 첫 우승을 따낸 뒤 여세를 몰아 신인왕까지 올랐던 송가은에게는 281일 만에 따낸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첫날부터 사흘 내내 선두를 지킨 끝에 따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 기쁨이 더했다.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은 송가은은 상금랭

킹 23위에서 7위(3억2276만 원)로 경종 뛰었다. 송가은은 올해 들어 '2년 차 징크스'가 우려됐으나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시즌 13번째 출전인 이번 대회에서 송가은의 경기력은 이전과 확 달라졌다. 3라운드 54홀 동안 단 4번밖에 그린을 놓치지 않았고, 버디 19개를 잡아냈다. 보기는 단 1개뿐이었다.

1라운드에서 그는 버디 10개를 뽑아내며 10언더파 62타를 몰아쳐 종전 기록을 2타 넘어선 코스 레코드를 새로 썼다.

오지현(26)에 2타 앞선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송가은은 2번 홀(파3) 버디에 이어 8번 홀(파3), 9번 홀(파4) 연속 버디로 4타차까지 달아나 일찌감치 우승을 예약했다. 유해란(21)은 보기가 없던 버디 8개를 쓸어담아 3위(14언더파 202타)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남성 호르몬 논란' 세메나 주종목 800m 아닌 5000m 된다

세계육상선수권 15일 개막

'남성 호르몬 규정'을 놓고 세계육상연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캐스터 세메나(31·남아프리카공화국)가 자신의 주 종목 800m가 아닌 5000m로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세메나는 지난 8일 세계육상연맹이 발표한 2022 유진 세계선수권 여자 5000m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하이워드 필드에서 개막한다.

세메나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등 '육상 메이저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7년 런던 세계선수권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대회 출전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세메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 선발전에서도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자국 1위 도미니크 스룻 등 세메나보다 앞선 선수들이 유진 세계선수권

출전을 포기하면서, 세메나가 출전권을 얻었다.

세메나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육상 여자 800m 2연패를 달성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3차례 800m 챔피언(2009년 베를린, 2011년 대구, 2017년 런던)에 올랐다.

하지만, 현재 세메나는 주 종목인 800m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세계육상연맹은 2018년 11월에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km)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mol/L 이하로 정했다.

육상계와 많은 언론이 이를 '세메나물'이라고 불렀다. 공식 명칭은 'DSD 규정'(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이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 남성은 7.7~29.4nmol/L이다. 공개한 적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가 세메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7~10nmol/L로 예상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2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3관 범죄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토르: 러브 앤 썬더
- 5관 탐간: 매버릭, 범죄도시 2
- 6관 토르: 러브 앤 썬더, 빅사크4: 바다공룡 대모험
- 9관 탐간: 매버릭
- 7관 세네케를 범죄도시 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8관 세네케를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공연
GAC ART WEEK
일시 : 2022.07.06.(수)-15.(금)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